



송언석 원내대표, 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 "대검·법무부 항의방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송언석 즉각 국정조사 협의"...추가 규탄집회도 검토

檢에 신중판단 얘기' 정성호 해명에 "대장동 변호인인가...외압 자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고, 시각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

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회의 현안질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장외투쟁까지도 말했는데 내일과 모레 진행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모레쯤 당원들이 모여 추가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 장관이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러주는 항소 포기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채봉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종묘 앞 초고층 턱하고 숨 막혀" 마구 결정할 일 아냐

종묘 찾아 점검 종묘 눈 가리고 기 누르게 할까 걱정, 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무리한 한강버스 시민부담 초래 지적도 김건희 겨냥 "왕도 못 지나가는 길인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종묘 앞 풍경을 바라보며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몇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 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m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동행한 취재진에게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에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

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언급했다.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허 청장으로부터 시설 설명을 들던 도중 김건희 여사의 종묘 무단출입 및 '차담회' 논란을 겨냥한 듯 "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 길인데 그렇게 한 것이었군요"라고 말했고, 둘러보는 도중에도 출입이 제한된 계단 앞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으니 올라가지 말자"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김 총

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작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면 55m·청계천면 71.9m에서 종로면 101m·청계천면 145m로 변경됐다.

이채봉 기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13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다룰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정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

자는 취지에서다.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이밖에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이 올라간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 나머지 인사 사안은 27일 또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경원 기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과보고

The 106th National Sports Festival

순위	시도	금	은	동	합계
1	경기	138	122	151	411
2	부산	66	57	117	240
3	서울	109	112	107	328

종목별 메달 집계

구분	금	은	동	합계
총계	28	6	4	5
3관왕	4	2	2	-
2관왕	24	4	2	5

신기록

한국1타이 1개
역도 남일부 박주현 (고양시청 / 용상73kg급)
대회신 6개
사격 여고부 최예민 (주엽고 / 공기소총·개인)
육상(트레) 여고부 권서민 (송원고 / 10KM경보)
육상(트레) 일반부 4X400mR (Mixed) (경기선방)
육상(필드) 여일반부 정예림 (과천시청 / 원반던지기)
대회타이 1개
양궁 남대부 김동현 (경희대 / 30M)

경기도 선수단 전국체전 4연패

땀과 열정으로 이룬 위대한 기록 경기체육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종합우승 4연패 달성!